

입당 얼마나 됐다고 ... 재탈당·복당 이합집산

김승남 의원 국민의당 탈당 후 더민주 복당키로

김동찬·조석호 지방의원도 “더민주 이행석 지지”

여야 각 정당이 4·13 총선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고, 각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끝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정기가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일부 지방의원들의 탈당·복당에 이은 특정 후보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과 김 의원의 지역구였던 고흥과 보성의 지방의원 13명, 당원 11명 등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했다.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더민주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과 복당원서를 주고 받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해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첫

현역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 복당이 점쳐진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복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러나다면 받을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석호 광주 북구의회 부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하고 더민주 복당과 함께 같은 당 이행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1월 더민주를 탈당했지만, 국민의당 입당을 하지 않았던 김동찬 광주시의원도 이날 복당과 함께 이행석 후보 지지에 힘을 보탤다. 이는 복구를 현역 입내현 의

원이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회 김승숙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탈당과 더민주 이병훈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더민주 탈당 정국에서 극심했던 ‘눈치작전’이 다시 국민의당 탈당으로 이어지면 시류에 편승하는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당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더민주 측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을 위한 복당의 문호를 개방해 절차를 간소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국민의당과의 박빙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세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전남 영암군의회 강찬원·박영주·

김철호·박영배 의원은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후보로 나선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고 호남정신의 복원과 권교체라는 목표는 안중에 없다”며 “미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탈당·지지선언은 지방선거 공천을 좌우하는 국회의원의 당선에 기여해 일찌감치 ‘지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상당수 의원들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보직까지 내걸고 선거판의 전면에서 섰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원들의 총선 후보 지지선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조직 미래지향적 개편해야

남도문예르네상스 등 새 프로젝트 기존 실과서 담당

업무부담 가중에 전문성 부족 타실과 지원도 기대안

전남도가 신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정부 정책 및 사업에 맞춰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프로젝트의 면밀한 추진, 관련 사업의 국비 마련 등은 물론 신규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 전략에도 조직 명칭이나 체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1년차에 ‘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에 이어 2년차에는 에너지산업, 남도문예르네상스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양관광과, 산림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문화예술과 등 기존 실과에서 떠맡으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타 실과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일자리정책 실을 시작으로, 실과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재양성과, 팀(과거 계) 단위에서는 튜닝밸리조성팀, 출산정책팀, 귀농귀촌팀, 신산업육성팀, 중국협력팀, 에너지밸리팀 등을 신설했다. 주로 실과 아래의 팀 단위에서 신규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타 시·도가 국가나 실과의 명칭을 과감히 바꾸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소극적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일자리민생본부, 창조경제산업실, 지역균형건설국 등으로

기존 국의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ICT융합산업과, 신성장산업과, 문화융성사업단, 미래전략기획단, FTA농식품유통대책단 등을 신설했다.

경남도는 미래산업본부, 기계융합산업과, 고용정책단, 한방향노화산업과 등을, 전북도는 미래산업과, 탄소산업과, 문화유산과(문화예술과와 별도), 농촌활력과 등을 뒤 미래지향적인 조직 개편을 마쳤다.

충북도 역시 미래전략기획단, 창조전략담당관, 바이오환경국(바이오정책과, 바이오산업과 등), 균형건설국 등 국과 실과의 명칭을 바꿨다.

이처럼 실과와 국의 명칭 변경은 지자체의 향후 지향점을 명확히 해 대내외적으로 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기도 보다 수월하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ICT, 문화융성, 경남도는 기계융합, 한방, 전북도는 탄소산업, 문화유산, 충북도는 바이오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명칭을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민선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가 조직 체계에서 명시될 필요는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을 가진 조직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양관광과, 산림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문화예술과 등 기존 실과에서 떠맡으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타 실과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들어 일자리정책 실을 시작으로, 실과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인재양성과, 팀(과거 계) 단위에서는 튜닝밸리조성팀, 출산정책팀, 귀농귀촌팀, 신산업육성팀, 중국협력팀, 에너지밸리팀 등을 신설했다. 주로 실과 아래의 팀 단위에서 신규 업무를 맡는 방식이다.

타 시·도가 국가나 실과의 명칭을 과감히 바꾸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소극적이다.

실제로 경북도는 일자리민생본부, 창조경제산업실, 지역균형건설국 등으로

광주시 정보화사업에 지역 IT기업 참여 확대

신규인력 채용때 가산점

청년창업자 참여 기회도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지역 IT기업과 청년창업자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청년창업자 참여 확대 및 일자리창출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항목에 상생협력 부문을 추가했다.

공동도급 참여 기업 수가 많고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이 높을수록 많은 점수를 받고, 하도급 참여 기업 수가 많고 하도

급 참여 지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 항목 점수는 사업 성격과 사업비에 따라 10점 이내 범위에서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게 했다.

IT사업 추진 시 제안서 평가항목에 가산점을 신설해 청년창업자가 참여할 때는 가산점을 준다.

IT분야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도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은 사업 성격이나 사업비에 따라 5점의 범위 이내에서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주재희 광주시 스마트행정담당관은 “지역 IT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 같은 정책이 유관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 사전 체험 투표소

27곳 설치 내달 8일 운영

광주·전남 선관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이달 30일 광주와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서 ‘유권자와 함께하는 사전투표 체험투표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13 총선에 첫 도입되는 사전투표 체험은 다음달 8일과 8일 1박2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관위 등은 이날 행사에서 사전투표 체험 및 사전투표 장비와 사전투표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투표 체험투표소는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자치단체별로 1곳을 지정·운영된다.

체험투표소 운영시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운영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체험투표소 운영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전남 지역 3곳에서 언론사, 선거사무관, 기자 및 정당관계자, 일반 유권자가 함께하는 ‘사전투표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순회 체험전’을 열었다.



총선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 2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13 총선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에서 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개표 작업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장애인 위한 특수 기표소 선보여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투표장비 설명 및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거모니터단 9명과 취재진이 참석했으며 사전투표장비와 투표지, 투표지 분류작업 등이 선보였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수 기표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투표 시연에 참가한 윤정표(33·뇌경변 1급장애)씨는 “기표대 높이가 조금 높아 불편했지만, 전반적으로 장치가 좋아져 편했다”며 “장애인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시연에 이어 투표지 심사계수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심사계수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투표지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류하는 기계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며 분류를 할 수 있어 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시연회를 참관한 양정관(63) 한국어성 유권자광주연맹 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 기표구와 시설이 인상적이었다”며 “투표 분류기와 심사계수의 작동 장면을 보니 공정하게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과/리식/라섹/백내장/녹내장/안과/안정형/노안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